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개념이 Weiss (1974)와 Cobb (1976)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진 이후,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이 주위의 사회 망(social network)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 건강, 스트레스 대처양식,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으며, 또한 사회 망의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제공하는 많은 예방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e.g., Hirsch & Reischl, 1985; Sandler, 1980; Quamma & Greenberg, 1994). 그러나, 사회적 지지 망 (social support network)의 발달과 사회적 지지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의 하나로서,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후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network orientation)으로 표기)은 최근에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e.g., Tolsdorf, 1976; Eckenrode, 1983; Vaux, Burda, & Stewart, 1986; Barrera & Baca, 1990).

도움을 요청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연구자는 Tolsdorf (1976)였는데, 그는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도움이 필요할 때 사회적 지지 망을 구성하는 주위 사람들의 잠재적인 유용성에 관해 가지는 믿음, 태도, 그리고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Tolsdorf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 망으로부터 받는 도움의 효율성에 관해 안정된 태도를 받

달시키며, 사회적 지지 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개인이 그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Tolsdorf의 초기연구 (1976, 1978)이후,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지 과정들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Jang, 1997 참고). 즉,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사용 가능한 도움이 적었으며 (Vaux & Wood, 1987; Vaux, Burda, & Stewart, 1986; Pretorius, 1993),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적었고 (Vaux, Burda, & Stewart, 1986; Pretorius, 1993),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실제 이용하는 사회적 지지가 적었으며 (Eckenrode, 1983), 또한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낮은 만족감 (Vaux & Wood, 1987; Barrera & Beca, 1990; Belle, Dill, & Burr, 1991)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이러한 영향에 더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또한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망에 대한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낮은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감과 연관되어 있으며 (Barrera & Baca, 1990; Hobfoll & Lerman, 1988; Gruen, Schuldborg, Nelson, Epstein, Weiss & Quinlan, 1994; Pretorius, 1994; Garland & Zigler, 1994; Riley & Eckenrode, 1986; Gannon & Pardie, 1989), 내적 통제 의 소유 (Eckenrode, 1983; Belle, Dill, & Burr, 1991), 높은 자아존중감 (Belle, Dill, & Burr, 1991) 및 다른 사람들과의 높은 친밀감 (Hobfoll & Lerman,

1988)과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의 효율적인 적응과 상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사회적 지지의 과정과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의 이해에 있어서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가 수행되어오지 않았다.

몇몇 선행 연구들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 과거에 받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아동기때 신체적 또는 성적인 학대의 경험 등이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의미있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사람과의 과거경험이나 이전의 관계가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애착에 관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다른 사람과의 최초의 관계는 보통 영아기때 엄마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엄마와의 초기 관계가 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Bowlby, 1973, 1980, 1982). 이러한 애착이론에 근거해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 특히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초기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동안 밝혀진 다양한 심리학적 원칙이나 지식들이 모든 문화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인 문화 특정한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우리자신의 고유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모든 외부 세계를 보고 인식한다. 즉, 문화는 사물을 지각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의 필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관한 몇몇 이전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방식의 일반적인 2차원, 즉 부모의 수용성과 통제성의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설명, 해석되어 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e.g., Chao, 1994; Rohner & Pattengill, 1985). 그들에 의하면, 부모의 수용성은 범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부모의 따뜻함, 지지, 상호작용, 그리고 관심을 나타낸다. 반면, 부모의 통제성과 엄격함은 문화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과 유럽 문화권에서 부모의 통제성은 부정적인 의미, 즉 부모의 적대성, 공격성, 혹은 부모의 지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동양문화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친밀한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간의 조화와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동양사회에서 부모의 통제성과 엄격함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염려, 그리고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Chao, 1994; Rohner & Pattengill, 1985). 그리하여, 동양문화권에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의 발달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미국이나 유럽문화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영향은 문화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비교문화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이 어떻게 문화에 따라서(미국과 한

국) 유사하거나 다르게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관계가 각 문화에서 현재 개인의 애착유형에 의해 어떻게 중재되어 지는 가를 연구하였다.

II. 연구배경

1. 사회적지지, 자녀양육방식, 애착유형

2. 비교문화적 관점

II. 연구배경

1. 사회적지지, 자녀양육방식, 애착유형

지난 20여년간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주위의 사회 망(social network)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양식,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다(e.g., Antonucci, 1990; Hirsch & Reischl, 1985; Sandler, 1980; Quamma & Greenberg, 1994).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Weiss (1974)와 Cobb (1976)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진 이후,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인 구인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Cobb (1976)은 사회적 지지에 관한 고전적 연구에서, “개인이 사랑받으며, 가치있게 존중되고, 의사전달의 상호 망에 속한다는 ‘정보’”로써 정의하였으며, Barrera (1986)는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요소들, 즉 사회적인 연대감, 지지 제공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질로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Newcomb (1990)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외부의 사회 환경으로부터 개인으로의 일방향적인 영향으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비록 개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은 다양하지만 비교적 한 개인에 대해 불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하여, 많은 연구들은 어떻게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이 발달, 유지, 이용, 및 지각되는 지에 관한 환경적인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어

져 왔다.

Vaux (1988)가 제시한대로, 사회적 지지과정은 보통 개인이 사회 망으로부터 도움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며,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에서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망의 발달과 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들의 역할은 사회적 지지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들 중에서, 연구자들은 통제 의 소재 (e.g., Eckenrode, 1983; Riley & Eckenrode, 1986; Lefcourt, 1984), 자아존중감 (e.g., Hobfoll, Nadler & Leiberan, 1986; Dunkel-Schetter, Folkman, & Lazarus, 1987),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적작동모델 (e.g., 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 Waltz, 1991; Blain, Thompson, & Whiffen, 1993) 등에 관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변인들에 더해서, Eckenrode (1983), Vaux, Burda와 Stewart (1986) 및 Barrera와 Baca (1990)같은 연구자들은 최근에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변인에 관심을 집중해 왔으며, 사람들은 사회 망으로부터 얻는 도움의 효율성에 관해 안정된 태도를 발달시킨다고 제안하였다. 도움을 찾는데 있어서의 개인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Tolsdorf는 (1976)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 망에 있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유용성에 관해 가지는 믿음, 태도, 그리고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Tolsdorf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 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개인이 그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지지 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

고, 불필요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일련의 기대나 믿음”이라고 하였다 (p.413). Eckenrode (1983)와 Hobfoll과 Lerman (1988)도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각 “도움요청에 관한 믿음” 그리고 “개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소개한 바 있으며, 사회적 지지 과정에서 이러한 변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사람은 Vaux (1985, 1986, 1987, 1988)였다. Vaux (1985)와 Vaux, Burda, 및 Stewart (1986)는 Tolsdorf(1976)의 구인에 기초해서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측정법을 개발하였다. 이 자기보고법 (Network Orientation Scale; NOS)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구조에 관해 요인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3개의 주요요인 (i.e., 조연/독립, 부정적인 도움요청의 이전 경험, 그리고 불신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ux, 1985).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심리적 안녕과 적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지 과정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Jang, 1997 참고). 즉,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지 망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적었으며 (Vaux & Wood, 1987; Vaux, Burda, & Stewart, 1986; Pretorius, 1993),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적은 사회적 지지를 (Vaux, Burda, & Stewart, 1986; Pretorius, 1993) 지각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낮은 사회적 지지

의 이용과 (Eckenrode, 1983),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불만족감과 (Vaux & Wood, 1987; Barrera & Beca, 1990; Belle, Dill, & Burr, 1991) 상관되어 있었다.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사회적 지지 과정에 대한 이러한 영향에 더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또한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성있게 사회 망에 대한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낮은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포함하는 정서적인 안녕과 (Barrera & Baca, 1990; Hobfoll & Lerman, 1988; Gruen, Schuldborg, Nelson, Epstein, Weiss & Quinlan, 1994; Pretorius, 1994; Garland & Zigler, 1994; Riley & Eckenrode, 1986; Gannon & Pardie, 1989), 내적 통제소유 (Eckenrode, 1983; Belle, Dill, & Burr, 1991), 높은 자아존중감 및 (Belle, Dill, & Burr, 1991), 다른 사람들과의 높은 친밀감 (Hobfoll & Lerman, 1988)을 포함하는 개인의 효율적인 적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은 안정성을 가진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개인의 지지 망에서의 오랜 시간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과정과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의 이해에 있어서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가 수행되어오지 않았다.

초등 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종단 연구에서, Belle, Dill, 및 Burr (1991)은 실제로 이전에 경험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내적 통제소재가 아동의 이후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niesin (1997)은 여성이 아동기에 받은 신체적 혹은 성적인 학대 경험과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측면들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좀 더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숙자 여성집단과 가난한 여성집단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Goodman (1991)은 이 두 여성 그룹 사이의 사회적 지지 망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측정된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오직 그들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서만 발견되었는데, 노숙자 여성들이 가난한 여성들보다 좀 더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기원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Wallace와 Vaux (1993)는 안정적인 (secure) 애착 유형을 가진 대학생들이 회피적이거나 (avoidant) 불안한 (ambivalent) 애착유형을 가진 학생들 보다 그들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현재의 애착유형, 이전에 받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아동기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학대의 경험 등이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의미있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 망에서 이전의 다른 사람과의 경험이나 관계가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애착에 관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다른 사람과의 최초의 관계는 보통 영아기때 엄마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엄마와의 초기 관계가 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개인의 내적작동 모델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Bowlby, 1973, 1980, 1982). 또

한 Wallace와 Vaux (1993)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후에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아동기에 부모와의 경험이 후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e.g., Collins & Read, 1990;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예를 들어, Collins와 Read (1990)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차갑지 않았다고 보고한 개인들은 부모가 차갑고 비 일관적이었다고 지각한 사람들보다 후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편안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지각하였다. Lamborn 등 (1991)에 의하면, 또한 부모의 수용성과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지각과 자기신뢰의 발달, 그리고 심리적인 안녕에 기여한다. 그리하여,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후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데 있어서의 편안함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초기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나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는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e.g., Collins & Read, 1990; Wallace & Vaux, 1993; Hazan & Shaver, 1987).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회피적이거나 불안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신뢰롭고 믿을 만하다고 지각한다. 더욱이 Carnelley, Pietromonaco,

및 Jaffe (1994)는 어머니와의 어린 시절 경험과 후에 이성과의 관계간의 관련성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에 의해 중재되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현재 애착유형이 과거 부모와의 경험과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를 중재함을 시사한다.

2. 비교 문화적 관점

최근 심리학에서는 그 동안 서구 문명에서 연구를 통해 검증된 심리학적 지식이나 원칙들이 다양한 문화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가능한 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심리학적 지식의 제한점을 규명하는데 주요 관심을 둔 심리학의 한 분야가 '비교문화 심리학'이며 이에 대한 관심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우리자신의 고유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외부 세계를 보고 인식한다. 즉, 문화는 사물을 지각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의 필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Matsumoto, 1994).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 좋고/나쁨, 옳고/그름, 또는 우월함/열등함 등의 어떤 가치를 결부시킬 때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회적 지지 망과 관련하여서도 문화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Tietjen (1989)에 의해 제기된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이 속해있는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없이 어떤 유형의 사회 망이 지지적이고 도움이 되며, 무엇이 사회적 지지인 가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체계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생태학적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p.64). 사회 망의 여러 특성들에 관한 문화적 차이는 몇몇 선행연구에서 나타난다 (Caplan, Choy, & Whitmore, 1992; DeRosier & Kupersmidt, 1991; Tietjen, 1982).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사회 망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DeRosier와 Kupersmidt (1991)는 코스타리카 아동들이 미국 아동들보다 사회 망 구성원들과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친구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화작용과 관련하여, Cauce, Felner, 및 Primavera (1982)는 흑인 아동들은 백인 아동들과 히스파니아계 아동들보다 가족을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라고 지각하며, 흑인과 백인 아동들은 히스파니아계 아동들보다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보다 유용하다고 보고함을 발견하였다.

사회 망에 대한 지각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사회 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비록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및 중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Tata & Leong, 1994; Pretorius, 1993; Hobfoll & Lerman, 1988), 개인의 네트워크 오

리엔테이션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교문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잠재적인 문화의 영향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관련하여, 부모의 수용성과 통제성의 경험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Radziszewska, Richardson, Dent, 및 Flay (1996)는 백인계 미국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아시아인들보다 자녀양육에서 보다 수용적이고 통제적임을 발견하였다. 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및 Fraleigh (1987)는 또한 백인 가정이 아시아인, 히스파니아인, 및 흑인 가정들보다 권위적인(authoritative) 자녀양육방식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Baumrind (1991)에 의하면, 통제적이고, 규제적이며 처벌적인 자녀양육방식은 흑인 청소년들이 위험한 도시 빈민굴의 생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위하여 부모에 의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최근에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과 부모자녀양육방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은 간과되어져 왔다.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관한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방식의 일반적인 2차원, 즉 부모의 수용성과 통제성의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e.g., Chao, 1994; Rohner & Pettengill, 1985).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ohner와 Pettengill (198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통제성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지각은 부모의 온정성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으며, 낮은 부모의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청소년에 관한 연구결과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써, 미국의 청소년들은 엄격한 부모의 통제를 부모의 적대감과 거부로써 지각하였다. Chao (1994)는 또한 중국문화에서 부모의 통제성이나 엄격함의 의미는 부모의 관심, 관여, 및 보살핌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부모 통제성과 관련하여 아시아 문화에서는 ‘훈련(training)’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부모의 통제성과 관련하여 문화에 따른 그 의미의 차이는 부모자녀양육방식이 개인의 사회적지지 망의 여러가지 특성들(즉,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지각된 지지의 양 및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문화에 따른 다양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해서,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에서 비교문화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두개의 다른 문화(즉, 미국과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 연 구 방 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대학생들의 회상된 부모의 양육방식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사회적지지 망의 여러 가지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학생들간에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 즉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지각된 사용가능한 사회적 지지의 양, 및 그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사회적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간의 관계가 각 문화에 따라서 어떤 유형을 보이는 지를 비교·분석한다.

넷째, 각 문화에서 개인의 현재 애착유형이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지를 검증하고, 문화에 따른 그 양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Boston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듣고 있는 147명의 백인계 미국인 대학생들과 한국의 Y대학과 S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221명의 학생들이었다. 백인계 미국인은 73명의 남학생과 74명의 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는 17-24세로 평균 연령은 18.9살이었다 ($SD=1.22$). 한국의 연구참여자는 124명의 남학생과 97명의 여학생이었으며, 나이는 18-26세로 평균 연령은 19.98살이었다 ($SD=2.18$).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수용성 및 통제성에 대한 회상, 현재의 애착 유형, 그리고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어진다.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번역, 역번역의 과정을 걸쳐 한국에서 실시되었다.

(1) 부모의 수용성 및 통제성에 관한 척도

아동기 때 경험한 부모의 온정성은 4개의 하위척도 (온정성, 적대감, 무관심, 미분화된 거부)로 구성된 6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인 PARQ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Rohner, 1984) 중에서 부모의 온정성과 관련 있는 25문항을 온정성과 거부 척도에서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항상 사실이다”에서 “거의 사실이 아니다”에 이르는 4점 평정척도로써, 참가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 문항이 그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 지를 평가하였다. PARQ 문항의 예로는 “어렸을 적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시고, 나의 의견을 들곤 하셨다”, “어렸을 적에,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나에게 이야기하시곤 하셨다” 등이 포함된다. Rohner (1986)의 연구에서 보고된 성인용 PARQ의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95였으며, 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25문항의 온정성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백인계 미국인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95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94이었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경우 Cronbach α 계수 .94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93이었다.

부모의 통제성은 Schludermann과 Schludermann (1970)에 의해 개정된 18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진 108문항의 CRPBI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chaefer, 1965)중에서 부모의 통제성과 관련된 5가지 하위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i.e., control, enforcement, lax discipline, extreme autonomy & nonenforcement). 참가자들은 각 문항이 어느 정도로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아버지(어머니)와 유사한지를 3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규칙을 정하시고 그것을 고집하시곤 하셨다” 등이다. CRPBI의 내적 합치도는 .66-.84로 보고되었으며 (Schaefer,

1965),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척도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89, 어머니에 대해서는 .88이었으며, 한국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88, 어머니에 대해서는 .88로 나타났다.

(2) 현재의 애착유형에 관한 척도

참가자들의 현재 애착유형은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애착유형 질문지(Attachment Questionnaire, Mikulincer, Florian, & Tolmacz, 1990)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참가자들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Mikulincer, Florian, 및 Tolmacz (1990)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안정적 요인, 회피적 요인, 양가적 요인의 3요인이 보고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 α 계수의 범위는 .79-.83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미국학생의 경우 Cronbach α 가 .56-.81이었고, 한국학생의 경우는 .58-.63이었다.

(3) Network Orientation Scale (NOS)

NOS (Vaux, Burda, & Stewart, 1986)는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성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이 질문지는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점수는 사회적 지지의 자원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 즉,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낸다. NOS의 내적 합치도는 .60-.88이었으며 (Vaux, Burda, & Stewart, 1986)는, 1, 2주 후의 검사-재검사법 신뢰도는 각각 .85와 .87이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지와 성격 변인들과 관련하여 NOS의 적

절한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NOS의 내적 합치도는 백인계 미국인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85이었으며, 한국인에 대해서는 Cronbach α 계수 .76이었다.

(4)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SSQ)

SSQ (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는 개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과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한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첫번째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최대 9명까지 나열하고, 다음은 6점 척도를 이용하여 얼마나 그들이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게 된다. Sarason et al. (1983)은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해서는 .97, 지지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는 .94의 높은 SSQ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으며, 4주에 걸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양에 대해서는 .90, 그것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는 .83).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97, 한국대학생의 경우 .96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만족감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97, 한국대학생에 대해서는 .9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IV. 연구 결과

1. 문화에 따른 주요 변인들간의 차이
2. 예비분석
3.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
망간의 관계
4.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에서 애착
유형의 중재효과

IV. 연구결과

1. 문화에 따른 주요 변인들간의 차이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아동기 부모의 온정성과 통제성에 대한 회상, 현재의 애착유형,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IV-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주요 변인들에 대하여 각 문화간(한국과 미국)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분석이 수행되었다.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MANOVA 결과는 문화간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내었다($F(4, 359) = 51.22, p < .001$). 이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있어서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온정성($F(1, 362) = 31.91, p < .001$), 아버지 통제성($F(1, 362) = 44.50, p < .001$),

<표IV-1>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에 대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미국대학생 평균(SD)	한국대학생 평균(SD)
자녀양육방식		
아버지 온정성	84.04(13.41)	76.08(12.50)
아버지 통제성	53.03(9.89)	46.44(9.38)
어머니 온정성	89.53(10.60)	82.62(10.93)
어머니 통제성	52.68(8.65)	44.24(8.96)
현재의 애착유형		
안정적	19.55(3.35)	18.02(3.31)
회피적	11.31(4.63)	11.96(3.56)
양가적	12.01(4.45)	12.77(3.35)
사회적지지망		
네트워크오리엔테이션	41.45(7.83)	43.79(6.06)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양	123.65(56.59)	89.84(45.47)
지지에 대한 만족감	139.91(19.41)	119.76(26.76)

Note. 미국대학생의 경우 전체 n=147, 한국대학생의 경우 전체 n=221

어머니 온정성($F(1, 362) = 41.58, p < .001$), 어머니 통제성($F(1, 362) = 80.24, p < .001$). 이러한 결과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다 온정적이고 보다 통제적이라고 회상했음을 나타낸다.

애착유형에 대한 MANOVA 결과 또한 문화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를 나타냈다($F(3, 364) = 6.83, p < .001$). 사후검증결과 문화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는 단지 안정적인 애착유형에 대해서만 나타났으며($F(1, 366) = 18.52, p < .001$),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보다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애착유형과 양가적 애착유형에 대해서

는 문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지각과 관련하여 수행된 MANOVA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결과 문화에 따른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F(3, 358) = 23.47, p < .001$).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보다 부정적인 네트워크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 360) = 11.52, p < .01$),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했고($F(1, 360) = 39.33, p < .001$), 또한 그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다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F(1, 360) = 58.16, p < .001$).

2. 예비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연구의 주요 변인들 (부모의 온정성과 통제성에 대한 회상, 현재의 애착유형,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지위(SES), 종교의 유무, 부모의 교육수준이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대학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나이는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r = .18, p < .05$),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다 ($r = - 1.67, p < .05$).

그리하여 학생들의 나이가 많아 질수록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에 대한 one-way ANOVA 결과는 종교가 있는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종교가 없는 미국대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더 많았으며 ($F(1, 142) = 14.43, p < .001$), 그에 대한 만족감도 높게 나타났다($F(1, 142) = 4.95, p < .05$) (표IV- 2).

<표IV- 2>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종교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종교의 유무		F
	무종교	종교	
1. 미국대학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86.20(52.52)	131.51(54.54)	14.44***
지지에 대한 만족감	132.16(19.92)	141.54(18.99)	4.95*
2. 한국대학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82.66(42.43)	95.93(47.34)	4.61*
*p < .05 **p < .01 ***p < .001			

둘째 한국 대학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어서($r = .25, p < .001$),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높으면 지각된 지지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종교의 유무와 관련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있는 한국 대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사회

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15) = 4.61, p < .05$) <표IV-2>.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i.e.,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지위, 종교의 유무)은 이후의 분석에서 통제되었다.

3.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간의 관계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간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검증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각각의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에 대한 별개의 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모델에 들어갔으며,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 관한 변인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모델에 추가되었다.

먼저 <표IV-3>에 제시되어있는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상관되어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즉, 나이) 통제한 후에, 아버지의 온정성만이 유의미하게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하였다. 즉, 미국 대학생들은 아버지를 온정적이고 따뜻하였다고 회상할수록 ($\beta = -.29, p < .01$) 좀 더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고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이 유의미하게 미국 대학생들의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되어 있어서(각각 $\beta = .31, p < .001, \beta = .18, p < .05$),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으

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의 온정성만이 유의미하게 미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5, p < .001$). 즉, 미국 대학생들은 어머니를 온정적이었다고 회상할수록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에 대해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통제성은 본 연구의 어떤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과도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 대학생에 대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는 <표 IV- 4>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망 중에서 우선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성만이 유의미하게 한국 대학생들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설명하였다 ($\beta = -.17, p < .05$). 즉, 어머니를 온정적이고 따뜻하였다고 회상할수록 좀 더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통제성은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하여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아버지의 온정성과 아버지의 통제성이 유의미하게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되어 있었다 (각각 $\beta = .19, p < .05, \beta = .17, p < .05$). 그리하여 한국 대학생들은 아버지를 온정적이고 통제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사회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지각된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관련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만이 개인의 지지

에 대한 만족감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각각 $\beta = .19$, $p < .05$, $\beta = .15$, $p < .05$).

<표 IV- 3>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의 부모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간의 관계 (미국 대학생)

	1단계: Beta	2단계: Beta	R ² 의 변화	변화에 대한 F값
1.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인구통계학적 변인			.03	4.58*
아버지 온정성	--	-.29**		
아버지 통제성	--	.01		
어머니 온정성	--	-.15		
어머니 통제성	--	-.10	.15	6.34***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인구통계학적 변인			.09	13.67***
아버지 온정성	--	.31***		
아버지 통제성	--	.13		
어머니 온정성	--	.18*		
어머니 통제성	--	-.12	.17	7.61***
3.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인구통계학적 변인			.06	4.53*
아버지 온정성	--	.01		
아버지 통제성	--	-.07		
어머니 온정성	--	.35***		
어머니 통제성	--	.02	.13	5.18**

* $p < .05$

** $p < .01$

*** $p < .001$

Note. 점선 (--)은 그 단계에서 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 대학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온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통제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표 IV- 4>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의 부모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간의 관계 (한국 대학생)

	1단계: Beta	2단계: Beta	R ² 의 변화	변화에 대한 F값
1.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아버지 온정성	-.07			
아버지 통제성	-.03			
어머니 온정성	-.17*			
어머니 통제성	.11		.07	3.82**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인구통계학적 변인			.03	5.48*
아버지 온정성	--	.19*		
아버지 통제성	--	.17*		
어머니 온정성	--	.02		
어머니 통제성	--	.07	.04	2.45*
3.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인구통계학적 변인			.06	13.25***
아버지 온정성	--	.19*		
아버지 통제성	--	.05		
어머니 온정성	--	.15		
어머니 통제성	--	.02	.07	4.19**

*p < .05

**p < .01

***p < .001

Note. 점선 (--)은 그 단계에서 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4.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에서 애착유형의 중재효과

현재 개인의 애착유형이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간의 관계에 가지는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문화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모델에 포함되었으며, 지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 변인과 통제성 변인이 두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개인의 애착유형이 세번째 단계에서 모델에 추가되었다.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유형 변인의 중재효과는 중재변인 (현재의 애착유형)이 모델에 추가된 후에 독립변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과 통제성) Beta계수 크기가 모델의 그 이전 단계에서보다 작아지거나 무의미해지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Baron & Kenny, 1986).

<표 IV- 5> 사회적 지지 망 변인들을 예측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미국 대학생)

	2단계: Beta	3단계: Beta	R ² 의 변화	변화에 대한 F값
1.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통제변인)				
아버지 온정성	-.29**	-.13		
아버지 통제성	.01	.00		
어머니 온정성	-.15	.01		
어머니 통제성	-.10	-.03	.15	6.34***
안정적	--	-.35**		
회피적	--	.19		
양가적	--	.01	.17	12.09***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통제변인)				
아버지 온정성	.31***	.19*		
아버지 통제성	.12	.14		
어머니 온정성	.18*	.06		
어머니 통제성	-.12	-.16*	.17	7.61***
안정적	--	.40***		
회피적	--	.03		
양가적	--	-.09	.12	8.73***
3.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통제변인)				
아버지 온정성	.01	-.06		
아버지 통제성	-.07	-.03		
어머니 온정성	.35***	.27**		
어머니 통제성	.02	-.02	.13	5.18**
안정적	--	.23*		
회피적	--	-.03		
양가적	--	-.18*	.08	5.05**

*p < .05

**p < .01

***p < .001

Note. 점선 (--)은 그 단계에서 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지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국 대학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표 IV-5)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통제된 후에 아버지의 온정성만이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 = -.29$, $p < .01$). 개인의 애착유형 점수가 회귀모델에 포함된 회귀분석의 세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의 온정성에 대한 표준화된 Beta계수는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애착유형만이 유의미하게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되어 있었다 ($\beta = -.35$, $p < .01$) (표IV- 5). 애착유형 변인이 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아버지의 온정성에 대한 Beta크기가 무의미하게 된 것은 개인의 현재 애착 유형이 지각된 아버지 온정성과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함을 나타낸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이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나, 개인의 애착유형 변인이 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아버지 온정성의 Beta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안정적인 애착유형이 유의미하게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되어있었다 ($\beta = .40$, $p < .001$). 즉, 미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애착유형이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과 지각된 지지의 양과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성이 높으면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 $p < .05$). 마지막으로 지각된 지지의 양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관련한 애착유형의 중재효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 어머니의 온정성만이 유의미하게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개인의 애착유형이 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어머니의 온정성에 대한 Beta는 유의미하였으나 그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안정적인 애착유형과 양가적인 애착유형이 유의미하게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미국 대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양가적인 애착유형이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간의 관계를 중재하였음을 나타낸다 (각각 $\beta = .23, p < .05, \beta = -.18, p < .05$). 그리하여, 미국 대학생들에 대하여 회상된 부모의 온정성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애착유형으로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망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들에 대하여 개인의 애착유형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하여서 회귀모델의 세 번째 단계에서 애착유형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어머니 온정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안정적 애착유형과 회피적 애착유형이 학생들의 네트워크오리엔테이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각각 $\beta = -.27, p < .001, \beta = .37, p < .001$)(표 6). 사회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관련하여서는 애착유형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었을 때 아버지의 온정성과 아버지통제성 변인의 효과는 모델의 두 번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개인의 애착유형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의 관계에서 애착유형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하여서는 회귀분석의 세 번째 단계에서 애착유형 변인이 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아버지 온정성 변인의 효과는 작아졌으며 안정적이고 양가적인 애착유형 변인이 유의미하게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각각 β

= .18, $p < .05$, $\beta = -.17$, $p < .05$). 그리하여, 한국 대학생들에 대하여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는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의 애착유형변인에 의해 중재되었으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대해서는 개인의 애착유형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 6> 사회적 지지 망 변인들을 예측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한국 대학생)

	2단계: Beta	3단계: Beta	R ² 의 변화	변화에 대한 F값
1.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아버지 온정성	-.07	-.00		
아버지 통제성	-.03	-.02		
어머니 온정성	-.17*	-.07		
어머니 통제성	.11	.10	.07	3.82***
안정적	--	-.27***		
회피적	--	.37***		
양가적	--	.04	.26	26.48***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 (통제변인)				
아버지 온정성	.19*	.17*		
아버지 통제성	.17*	.17		
어머니 온정성	.02	.01		
어머니 통제성	.07	.07	.04	2.45*
안정적	--	.03		
회피적	--	-.11		
양가적	--	-.02	.02	1.27
3.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 (통제변인)				
아버지 온정성	.19*	.15*		
아버지 통제성	.05	.07		
어머니 온정성	.15*	.09		
어머니 통제성	.02	.02	.07	4.19**
안정적	--	.18		
회피적	--	-.06		
양가적	--	-.17*	.08	6.63**

*p < .05

**p < .01

***p < .001

Note. 점선 (--)은 그 단계에서 변인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V. 논 의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대한 회상이 문화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르게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의 중재역할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주요 변인들간의 문화간 차이와 관련하여서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다 온정적이고 보다 통제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부정적인 네트워크오리엔테이션을 보였으며, 사회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적었고, 또한 그러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둘째, 부모자녀양육 방식과 사회적 지지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대학생과 한국대학생 모두에 대해서 회상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은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통제성 또한 사회적 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애착유형은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 모두에 대하여 부모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의 관계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이 그 관계를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계 미국인 대학생들의 지각된 부모의 온정성과 통제성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e.g., 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Radziszewska, Richardson, Dent, & Flay, 1996).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백인계 미국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아시아인들 그리고 히스파니아계 사람들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보다 수용적이며 따뜻하고, 보다 통제적이라고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의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간의 차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사회적지지 망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는 한 개인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이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 가지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볼 때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의 지각된 지지의 양과 그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적은 지지의 양과 낮은 만족감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보다 낮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 실제로 받은 작은 지지의 양, 보다 적은 사회적 지지의 자원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e.g., Belle, Dill, & Burr, 1991; Pretorius, 1994;

Hobfoll & Lerman, 1988; Vaux, & Wood, 198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보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한국 대학생들이 더 적은 지각된 지지의 양과 낮은 지지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는 것이 설명되어진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과 이후의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간의 관계에 관한 결과는 몇몇 선행 연구들을 연결지어 봄으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2차원적 (수용/참여 대 통제/엄격) 평정에 기초해서, Lamborn 등(1991)은 부모의 수용성과 온정성은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지각이나 자기신뢰의 발달에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Belle 등(1991)은 또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지각은 긍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동기 때 높은 부모의 따뜻함과 수용성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긍정적인 자기지각이 개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찾고자 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망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감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미국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단지 아버지의 온정성만이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망의 다른 특성들의 지각에 있어서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정성과 수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개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성은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긍정적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 추구행동의 유용성에 관한 믿음이나 태도의 발달에 있

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이 좀 더 자녀양육에 관여하며 그로 인해 아동발달의 초기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에 보다 많은 초점이 맞춰져 왔다. 여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어머니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보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애착이론가들은 또한 생의 초기에 보살피 준 사람, 주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이 후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에 영향을 줄을 가정하였다. 더욱이, Baumrind (1991)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청소년의 행동에 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고립시켜서 연구하는 것은 이후의 개인의 사회 망과 사회적 기능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특히 미국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후에 사회적 지지 망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안하였다.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관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회적 지지 자원을 좀 더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부모양육방식이 미국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온정성인데 반하여 한국 대학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온정성이라는 것이다.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에서처럼 한국은 유교사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자녀들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들과 비교적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고, 엄격하며, 권위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Rohner & Pettengill, 1985).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

려해볼 때 아버지는 엄격하고 약간은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용적이고 따뜻한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형성하는데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성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통제성이 높을수록 사회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의 지각된 아버지의 통제성에 관한 결과는 Chao(1984)와 Rohner & Pattengill(1985)의 동양문화에서의 부모자녀양육방식에 관한 설명과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앞에서 소개되어진 대로 부모의 수용성과 통제성의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부모의 수용성은 범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부모의 통제성은 미국과 유럽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만 동양문화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다르게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계 국가에서는 친밀한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간의 조화와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동양사회에서 부모의 통제성과 엄격함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염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Chao, 1994; Rohner & Pattengill, 1985). 그리하여 이러한 동양사회에서의 부모의 통제성의 긍정적인 의미를 고려해볼 때 한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통제성은 사회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 긍정적으로 연관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통제성은 지각된 지지의 양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예측되었던 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에 대하여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이 회상된 부

모의 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특성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은 개인의 현재 애착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다시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특성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애착유형은 부모의 온정성과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특성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이후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을 예측해 주었지만, 부모의 온정성의 영향은 현재 개인의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망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한국과 미국 대학생 모두에 대해서 안정적인 애착유형은 회상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의 이러한 중재효과에 관한 결과는 Carnelley 등(199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현재 애착유형이 아동기때의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경험보다 후에 사람들간의 관계만족,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의 질, 사회관계에서의 갈등해결의 유형과 같은 영역에서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잘 예언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애착유형이 아동기 부모와의 경험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람과의 경험과 아동기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아동기때 주로 보살펴준 사람에 의해 영향받는 개인의 내적 실행 모델은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경험에 의해 변화되어 간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된다 (Bowlby, 1973).

안정적인 애착유형의 중재효과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적인 애착유형의 중재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

모두에 대해서 안정적인 애착유형과 함께 양가적인 애착유형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온정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주관적인 만족감간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양가적인 애착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과 관련된 불안인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가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점수가 높았으며 강박적이고 의존적인 사랑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g., Collins & Read,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그리하여 부모의 온정성은 안정적인 애착유형과의 긍정적인 관련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가적인 애착유형과의 부정적인 관련을 통해서 높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애착유형의 중재효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몇몇 예외의 결과가 있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자녀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의 양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애착유형은 그 관계를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양은 아버지의 온정성과 아버지의 통제성과만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온정성과 사회적 지지망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현재 애착유형의 중재효과에 대한 결과는 Carnelley 등(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아동기경험과 이후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의 관련성은 개인의 애착유형에 의해 중재되어졌으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현재 애착유형의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성과 사회적 지지망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현재 개인의 애착유형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앞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특성들의 지각과 관련하여서 아버지 온정성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향후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의 여러 가지 특성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미국간에 비교 연구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식이 어떻게 한국과 미국에서 유사하거나 다르게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또한 두 문화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부모의 따뜻함과 수용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문화에 따라서 부모자녀양육방식이 어떻게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된다면 청소년들이 실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양을 늘리는데 그 결과가 이용될 수 있어서 그들의 심리적인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보호 및 지도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 부모와의 높은 온정성의 경험이 이후 사회적 지지 망에 대한 긍정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부모의 온정성, 수용성, 적절한 참여와, 자녀의 필요에 좀 더 반응적인 부모의 중요성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도록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이 연구를 통해 아동기 부모와의 높은 온정성의 경험이 이후 개인의 도움요청에 관한 긍정적인 믿음과 사회적 지지 망에 관한 긍정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나, 연구의 단기횡단적인 특성때문에 그 방향성을 알 수는 없었다. 즉,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이후 개인의 사회망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단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횡단적인 연구이므로 개인의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살펴 볼 수는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정교히 디자인 된 장기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ntonucci, T.C. (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R.H. Binstock & L.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 pp. 205-221).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 - 445.
- Barrera, M., & Baca, L. (1990). Recipient reactions to social support: Contributions of enacted support, conflict support and network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541-551.
- Baumrind, D. (1980). New directions in socialization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 639-652.
-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A. Cowan & E.M. Hetherington (Eds.), Advances in family research (Vol. 2, pp.111-16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lle, D., Dill, D., & Burr, R. (1991). Children's network orient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362-372.
- Blain, H., Thompson, J., & Whiffen, V. (1993). Attach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late adolescence : The interaction between working models of self and oth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8, 226-241.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664-678.
- Caplan, N., Choy, M., & Whitmore, J. (1992). Indochinese refugee families and academic achievement. Scientific American, 36-42.
- Carnelley, K., Pietromonaco, P.,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llins, N. L., & Read, S.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eRosier, M., & Kupersmidt, H. (1991). Costa Rica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56-662.
- Dunkel-Schetter, C., Folkman, S., & Lazarus, R.S. (1987). Correlates of social support receipt.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53, 71-80.
- Eckenrode, H. (1983). The mobilization of social supports : Some individual constrai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509-528.
- Gannon, L., & Pardie, L. (1989). The importance of chronicity and controllability of stress in the context of stress-illness relationship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 357-372.
- Garland, A., & Zigler, E. (199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help-seeking attitud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 586-593.
- Goodman, L. A.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family homelessness : A comparison study of homeless and housed moth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321-332.
- Gruen, R., Schuldberg, D., Nelson, E., Epstein, L., Weiss, L., & Quinlan, D. (1994). Network orient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 Development of the network utilization sca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52-36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rsch, B., & Reischl, T. (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a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72 - 281.

- Hobfoll, S.E., Nadler, A., & Leiberman, J. (1986).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during crisis: Intimacy and self-esteem as critical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96-304.
- Hobfoll, S. E., & Lerman, M. (1988). 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 attitudes, and stress resistance :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s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565-589.
- Jang, M. (1997). An individual's network orientation. Unpublished Manuscript. Boston University.
- Jang, M., & Belle, D. (1999). Recollections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current attachment style and perception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Under review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 Lamborn, S., Mounts, N., Steinberg, L., & Dornbusch, S.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fcourt, H.M. (Ed.). (1984).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 Extensions and limitations (Vol 3). Orlando : Academic Press.
-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Hetherington (Ed.), P.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 Wiley.

- Matsumoto, D. (1994). People: Psychology from cultural perspective. Belmont, CA: Wadsworth.
- Mikulincer, M., Florian, V., & Tolmacz, R. (1990). Attachment styles and fear of personal death : A case study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3-280.
- Newcomb, M. (1990).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 A developmental and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54-68.
- Paniesin, T. (1997). The social support networks of women reporting histories of physical or sexual abuse : A comparison with non-abus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Pretorius, B. (1993). Willingness to use social support : Use of the network orientation scale with black south African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 1011-1017.
- Quamma, J., & Greenberg, M. (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Radziszewska, B., Richardson, J., Dent, C., & Flay, B. (1996).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smo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 Ethnic, gender, and SES differenc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 289-305.
- Riley, D., & Eckenrode, J. (1986). Social ties : Subgroup

differences in costs and benef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70-778.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CA : Sage.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285 - 302.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Sarason, B.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6, 413-424.

Schludermann, E. & Schludermann, S. (1970). Replicability of factors in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 (CRPBI). Journal of Psychology, 76, 239-249.
- Sdorow, L. (1995). Psychology. Brown & Benchmark.
- Tata, S., & Leong, F.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 Tietjen, A. (1982). The social networks of preadolescent childre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5, 111-130.
- Tolsdorf, C. (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15, 407-417.
- Tolsdorf, C. (1978). The multi-problem family: Stress, support, and coping in the social network.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1978.
- Vaux, A. (1985). Factor structure of the network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7, 1181-1182.
- Vaux, A., Burda, P., & Stewart, D. (1986). Orientation toward utilization of support resourc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59-170.
- Vaux, A., & Wood, J. (1987). Social support resources, behavior and appraisals : A path analysi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105-109.
- Vaux, A. (1988).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Y. : Praeger.

- Wallace, J., & Vaux, A. (1993). Social support network orientation :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354-365.
- Weiss, R.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 (pp. 17-2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